

교회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

(토요일 — 오전 1부 집회)

메시지 4

그리스도의 몸과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권위라는 요인

성경: 롬 9:23, 마 28:18, 엡 1:22-23, 히 4:16, 계 4:2, 22:1-2

I.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다.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— 롬 9:21-22.

- A. 하나님의 권위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다.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서부터 나온다 — 계 22:1.
- B. 영적 권위, 위치상의 권위, 통치상의 권위 등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— 고후 10:8, 13:10, 요 19:10-11, 창 9:6.
- C. 권위를 아는 것은 외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계시이다 — 행 22:6-16.
- D. 주 예수님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셨다.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고,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으며,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였고,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— 마 8:9, 요 4:34, 6:38, 빌 2:7-8.
- E. 주님은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다.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아들과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부활하신 후에 받으셨다 — 마 28:18.
- F.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님은 이제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, 권세를 가진 모든 이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이다.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신성한 통치 안에서 최고 통치자이다 — 행 2:23, 36, 5:31, 계 1:5.
- G.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몸인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게 하였고, 우주의 머리의 권위로 취임하게 하셨다. 온 우주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— 골 1:18, 행 2:36, 엡 1:22-23.

II. 그리스도는 단체적으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동시에 개인적으로 모든 믿는 이들의 머리이다. 그분은 직접적으로 우리 각 사람의 머리이시므로, 우리는 모두 그분의 권위 아래 있다 — 골 1:18, 고전 11:3.

- A.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몸 안에서 모든 권위를 가지신다는 것이다 — 롬 9:21, 23, 마 28:18.
 - 1. 몸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없다. 몸은 오직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다.
 - 2. 몸과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지시하는 권위는 머리이신 분께 있다.
- B. 우리가 머리의 권위 아래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가 몸의 생명을 아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— 고전 11:3, 엡 4:15-16, 골 1:18, 3:4.
 - 1. 몸은 오직 하나의 머리만 가질 수 있고, 오직 하나의 머리에만 복종할 수 있다 — 골 1:18.
 - 2.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머리이시므로,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고 증언해야 한다 — 엡 1:22-23, 마 23:8-12.
- C. 몸 안에 살기 위해 우리는 몸 안에 있는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— 엡 1:22-23, 골 1:18, 2:19.
 - 1. 몸 안에 있는 권위와 관련해서 첫 번째이자 최우선의 필요는 머리의 권위가 몸 전체에 흐르는 것이다 — 엡 5:23-24.

- a. 우리가 직접적으로 머리에 복종할 때, 우리는 또한 몸을 주의한다. 우리가 몸을 주의하지 않으면서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.
 - b.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시고, 오직 주님만이 그분의 몸의 지체들의 움직임을 지시하실 권위를 갖고 계신다.
2. 몸 안에서 장로들과 사도들은 머리의 권위를 수행하는 대표 권위자들이다 — 행 14:23, 딤후전 5:17상, 고전 12:28.
- a. 한 면에서 몸의 모든 지체들은 직접적으로 머리께 복종한다 — 엡 5:24상.
 - b. 또 다른 면에서 지체들은 머리의 대표 권위자들에게 복종한다 — 히 13:17.

III. 교회의 질서는 교회 안에 있는 권위에서 생긴다. 곧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는 데서 생긴다 — 골 1:18, 빌 1:1.

- A. 교회 안에는 어떤 인간적인 조직도 없지만 영적인 질서가 있다 — 빌 1:1, 고전 14:40, 11:34하.
- B. 교회의 머리는 주 그리스도이며, 교회 안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이다 — 마 28:18, 골 1:18.
- C.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하지만, 이 질서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로부터 생긴다 — 엡 1:22-23.
- D.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는 교회생활을 참되게 실행할 수 있다 — 골 1:18, 2:19.
 - 1. 교회 안의 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실질적인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생긴다 — 고전 11:3, 16, 엡 1:22.
 - 2.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를 실질적인 방식으로 인식함으로써 생긴 교회 안의 영적 질서가 없다면, 우리가 참된 교회생활을 실행할 가능성이 없다 — 고전 11:3, 14:40.

IV.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 표현되고 대표된다 — 고전 12:28, 벧전 5:1-3.

- A. 하나님은 장로들과 사도들을 교회 안의 권위로 세우셨다 — 고전 12:28, 행 14:23.
- B.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들 자신 안에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. 그들은 머리의 권위 아래 서 있을 때에만 권위를 갖는다. 그들은 머리의 권위를 대표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한다.
- C.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해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우셔서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게 하신다 — 행 14:23, 딤후전 1:5.
 - 1. 우주적인 교회 안에는 사도 직분이라는 직무가 있다. 사도 직분은 사도들에게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행정을 위해 장로들을 세울 위치와 권한을 준다 — 고전 12:28, 행 14:23, 딤후전 1:5.
 - 2.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우는 일에서 성령은 사도들과 하나이셨으며,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일을 했다 — 행 20:28.
 - 3. 장로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— 벧전 5:1-3.
 - 4. 감독으로서 장로들의 주된 책임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는 것, 곧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다 — 행 20:28.
 - 5. 장로 직분과 관련된 성경적인 원칙은 복수성이다. 장로 직분의 복수성에는 확정된 인도가 없으며,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가 중시되고 지켜지며 존중된다 — 행 14:23, 딤후전 1:5.

6.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(히 13:17).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 권위자에게 복종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없다.

V.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는 신성한 통치가 있으며, 이 통치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나온다 — 계 22:1-2.

- A. 교회 안의 신성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은혜로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 위한 것이다. 보좌에 복종하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근원에 참여할 수 있다 — 고후 13:14, 계 22:1-2, 16상.
- B.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권위의 보좌이고, 이 권위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되며, 이 보좌에서 ‘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’(1절)이 흘러나온다.
1. 비록 이 보좌가 권위의 보좌 곧 머리의 권위의 보좌일지라도, 이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— 계 22:1.
 2.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린양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한 은혜로 흘러나오고 계심을 의미한다.
 - a. 우리는 결코 은혜로부터 권위를 분리하거나 권위로부터 은혜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. 은혜와 권위는 하나이다 — 히 4:16, 계 22:1.
 - b. 이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— 히 4:16, 계 22:1-2.
 3. 오늘날 주 예수님은 단지 권위만 가지고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다. 그분은 은혜인 그분의 생명의 흐름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, 교회들 가운데서, 모든 교회들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 — 계 4:2-3, 5:6, 7:9, 22:1-2.
- C.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곧 권위는 신성한 행정의 근원일 뿐 아니라, 신성한 교통의 근원이다 — 계 22:1-2.
1. 권위와 교통은 몸 안에 있는 두 노선이다 — 고전 11:3, 12:12-13, 18, 1:9, 10:16-17.
 2. 보좌는 권위의 문제이지만, 흐르는 강은 길로 상징되는 교통의 문제이다. 이 길은 ‘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’으로 되어 있다 — 계 21:21.
 - a. 보좌는 신성한 권위를 대표하며, 우리가 신성한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— 계 22:1-2.
 - b. 이 교통 안에는 신성한 권위가 있는데,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권위가 언제나 교통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— 고후 10:8, 13:10, 14.
 3.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실질적인 방식으로 건축하기 위해,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와 보좌에서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는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가 모두 필요하다 — 계 22:1-2.